

“동남권 의생명연구의 중심” 양산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원장 노환중)은 2008년 11월에 개원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16만 5000㎡의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뇌신경센터 등이 설립돼 있으며, 부지 내에 부산대 한방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이 있는 종합의료타운으로써 우수한 의료진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환중 원장

개원 10년 만에 1303병상 규모 지역거점 병원으로 성장

개원 이후 10년 동안 양산부산대병원은 환자 수, 병상 수 등 모든 면에서 성장해오고 있다. 2008년 328병상, 직원 수 약 600명으로 시작하여 연간 외래 방문환자 약 29만 명, 입원 환자 약 15만 명, 약 6천 건의 수술 건수를 보였으나, 현재는 1303병상, 직원 수 약 2200명 연간 외래 방문환자 약 71만 명, 입원 환자 약 37만 명, 수술 건수 약 22000건으로 뛰어난 진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은 '생명을 존중하며, 최상의 교육, 연구, 진료로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서비스

개원 7년 만에 진료, 수련의 교육, 각종 인증, 병원 시설 및 환경, 첨단의료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원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으며, 2017년에도 그 자격을 다시 한번 인증 받았다.

국내 인증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증 제도인 JCI(국제적 의료표준평가 분야의 공인기관)를 2010년, 2013년 2회 연속 인증 받아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세계적으로 검증됐다.

또, 양산부산대병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에 견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수술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로봇 수술기 '다빈치 Xi'를 2015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400례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다. 2016년에는 혈관내시술(중재술)과 외과 수술이 모두 가능한 혈관조영장비와 수술 장비를 갖춘 최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2017년에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위한 별도 진료구역과 소생실, 처치실, 음압시설이 완비된 음압격리실,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CT 촬영실과 인공호흡기, 초음파기, 심장정지에서 소생된 환자를 위한 체온조절장비 등의 최첨단장비를 확보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하였으며, 정확한 진단, 환자의 피폭선량감소와 빠른 진료를 위해 MRI 4호기, CT 5·6호기를 도입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 수술 장면.

수도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장기이식수술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더 이상 수도권으로 간이식 등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개원 이후 2017년 까지 약 600례의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최단기간 간이식 300례, 췌장이식 30례를 달성하였고, 신췌장 동시이식, 심폐 동시이식을 시행함으로써 다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입원환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문객 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통하여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적절한 면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병동 만남의 장소’를 리모델링했다.

동남권 의생명연구의 중심

대통령 지역공약사항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적인 거점을 동남권의 중심인 김해, 양산에 의생명 교육, 연구시설, 병원 기반의 산·학·연·병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에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IRB 연합기구인 FERCAP으로부터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윤리성을 인증 받았으며, 2017년에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양산시, 부산대, 부산대 치과병원, 부산대한방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3월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저기술형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료서비스 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익성 개선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조성 사업에 있어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적인 인재 교육

양산부산대병원(이하 양산부대)은 관심 있는 병원 교직원 및 약산 지역 기업인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피누인 인문 아카데미’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양산지역 기업 및 기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21세기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또한, 질병에 대한 지식을 확장, 심화, 공유하기 위한 ‘인턴학술발표회’, 의사의 태도 및 윤리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의료윤리집담회’, 전공의 간의 화합 및 자유로운 의견교류의 장인 ‘전공의 Snack Day’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꿈과 열정의 10년, 더 큰 세계로 미래로

양산부산대병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꿈과 열정으로 키워온 10년간의 원동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병원의 격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장기 재원 환자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RMHC 하우스’와 더 나은 연구공간을 마련하기 한 ‘의생명연구동’을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도시에 있는 타 병원과의 경쟁에서 고급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원 기숙사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MP저널

1. 병동 만남의 장소 2. 문화공연사진 3. 해외의료봉사 단체사진.

